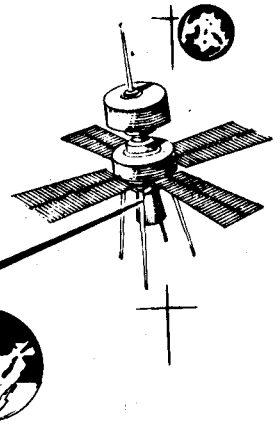


#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민주화의 양념으로 등장한 계란

깊고 긴 육계산업의 불황은 이제 계란값을 하락시키고 부화업계를 궁지로 몰아 부치고 사료 동물약품에까지도 파급되고 있다.

이번 불황으로 확증된 것은 노계(산란 육계종계포함) 시장이 매우 적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란의 생산조절 1차기능이 마비되고 과잉 종란생산으로 육계가격이 하락되고 값싼 육계가격은 노계시장을 잠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 노계육 소비시장에서 값싼 대체육이나 외국제품이 수입될 경우 아주 쉽게 양계산업 전반에 불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계값이 아무리 값싸도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지 않으면 처분의 길이 막혀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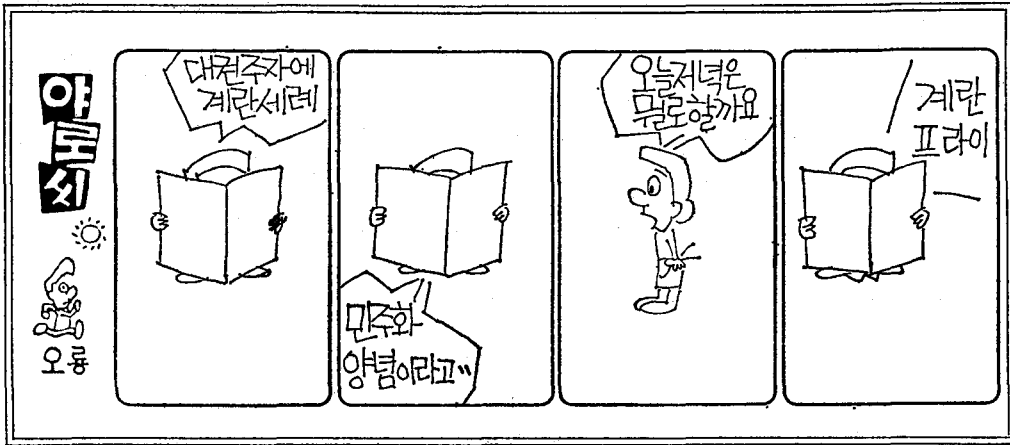
노계육의 위생적인 처리와 가격만 적절하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만두속 햄버거(Hamburger)원료로 많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스프(Soup), 스투(S-tew), 파이(Pie-채소와 섞은것), 샌드위치용 고기, 이

유식(baby food), 핫도그(Hotdog) 런치미트(Lunchen meat) 기타로 노계육소비처는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계란의 경우에도 값싼 때 액란으로 비축하는 방법과 한단계 발전해서 전액란외에 全卵을 저어서 발생하는 거품을 저온으로 처리해서 빵공장에 판매하든가 난황 난백을 분리하여 액란과 난분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난황과 난백을 분리하면 난백의 수요는 많은데 난황





▲ 조선일보 10월23일자  
 ▼ 중앙일보 10월23일자



의 수요가 없어 현재 분리작업을 하지못해 일부 공업용 등의 이름으로 난백이 수입되는 것도 국내에서 공급되도록 머리를 짜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난황과 난백의 가격정책을 적절히 하고 난황을 마요네즈 사라드 스펀지 케이크 카스테라 등에 사용하도록 개척하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요즈음 선거철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란의 수요처가 개발되는데 잘못하면 계란은 값싸고 천해 그저 던져버리는 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에 거부감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 창간 18주년

월간양계가 이번호로 창간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9년 11월호 창간호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산 접동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한 시인의 말처럼 11월 창간호를 위해서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의와 준비를 하였었다.



1969년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었다. 1962년 GNP 87\$에서 69년은 210\$로 2.4배나 크게 증가한 후이었다.

계산물 소비도 닭고기가 65년 14,458톤에서 42,251t으로 약 3배가, 계란은 47,068톤에서 133,676톤으로 2.8배가 증가한 후이니 그때만 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시기이었다.

새로운 양계기술을 습득하여 증산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었기에 새로운 양계기술정보의 보급에 월간양계도 주력하였다.

이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방지와 계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

가 되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더 고급으로 더 간편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까지 양계산업의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계산물의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도 업계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밖으로도 무역흑자가 커짐에 따라 계산물의 수입개방 압력까지 받고 있어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 이미 닭고기 통조림이 지난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었고 계란은 수입이 개방된 상태에서 감시품목으로 묶어 놓고 있으나 이도 짧은 기간내에 개방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90년엔 닭고기도 완전 수입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닭고기와 유사한 칠면조와 기타 가금육은 금년 7월1일부터 이미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게 되었다.

앞으로의 양계산업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은 상태에서 월간양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고 양계인들의 요구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현실이다.

창간을 맞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편집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업계의 모든 비능률과 낭비적이며 정직된 요소들을 드러내어 제거하여 산업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잡지언론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직접적인 참여로 발전하여 왔으니 앞으로도 더욱 많은 참여로 앞에 놓인 벽을 뛰어 넘어 재도약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18년간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계

「월간양계」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여 양계인  
여러분께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편집국일동 -